

홍살림  
HEUKSALIM



# “건강한 흙이 미세먼지를 잡는다”

## 흙의 날 슬로건 제창 알림석 제막식 거행

지난 3월 11일 제3회 흙의 날을 기리며, 홍살림 청주센터에서는 홍살림 알림석 제막식 및 고사가 열렸다. 먼저 홍살림 이름이 새겨진 입석을 청주센터에 옮겨 세운 것을 기념한 제막식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천지신명께 홍살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축문을 올렸다. 이어 각 사업부별로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절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홍살림 생산농가인 경북 김천의 자연그대로 작목반원들은 농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 홍살림은 이와 함께 흙의 날을 기념해 “건강한 흙이 미세먼지를 잡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흙의 중요성과 홍살림 운동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환경문제가 결코 흙의 파괴와 관련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제막식과 고사가 끝난 후에는 권영근 박사(홍살림 연구소 연구위원)의 <홍살림을 넘어 흙의 지역순환, 지역의 생물 다양성 살림으로>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4면>



홍살림은 제3회 흙의 날을 기념해 ‘건강한 흙이 미세먼지를 잡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홍살림 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홍살림은 지난 3월 11일 홍살림 청주센터에 홍살림 알림석을 옮겨 세운 것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가졌다.

## 충북도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획득

홍살림이 취급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표고버섯 3품목에 대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2021년까지 3품목에는 품질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품질인증마크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품질을 도지사가 인증하고 이를 상품에 표시하여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표시이다.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켜 충청북도 농특산물의 판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는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품질 좋은 명품농산물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용승인은 홍살림의 농산물이 우수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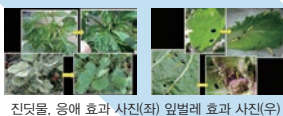


## 식물추출물 썩들어

작물충해관리용자재



- 초강력! 살충제 등장!!
- 그 무엇보다도 비고 불가!
- 썩! 듣는 홍살림 최신 살충제
- 마늘유 함유로 살충 효과는 기본!
- 해충 기피 효과는 보너스로 1+!!!
- 등록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사-3-5-047
- 사용방법 : 10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해충 : 진딧물, 응애, 잎벌레, 깍지벌레, 선녀벌레, 가루이류



진딧물, 응애 효과 사진(좌) 잎벌레 효과 사진(우)

## 잘들어총

작물충해관리용자재



-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잘들어는 여기까지!!!
- Level up! 최상의 상태로 재 탄생!!
- 총채벌레, 이제는 잘들어총으로 해결!!
- 잔류농약은 당연히 불검출!
- 등록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사-3-5-007
- 사용방법 : 10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해충 : 진딧물, 총채벌레, 버벌구



진딧물 처리 전(좌) 후(우)

## 충식이

작물충해관리용자재



- 확실하게!! 광범위하게!!
- 나방류 유충까지 한번에 잡는 다용도 살충제
- 고농도 식물추출물 4중 함유로 즉각적인 효과 발현!
- 잔류농약은 당연히 불검출!
- 등록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사-3-5-38
- 사용방법 : 500배 희석액 엽면 살포
- 대상해충 : 진딧물, 나방류 애벌레, 노린재류, 갈색날개매미충



청벌레 효과사진





휴살림은 3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볼룸에서 람동성 농업개발청(청장: Nguyen Van Son)과 양국 유기농업 발전 및 사업을 위한 MOU 협약을 진행하였다.

## 휴살림 - 베트남 람동성 농업개발청 MOU

# “양국 유기농업 발전 이루자”

휴살림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2019 베트남 람동성 투자무역관광 컨퍼런스’에 초대되어 람동성 농업개발청(청장: Nguyen Van Son)과 양국 유기농업 발전 및 사업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람동성 투자유치 컨퍼런스로 주한 베트남 대사(Nguyen Vu Tu)와 람동성 인민위원회 위원장(Toan Van Viet), 달랏 시장(Ton Thien San)등 베트남 주요 인사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및 한국 경제 TV 관계자들이 참석

하였다. 300여명의 국내외 투자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람동성은 베트남 서남부 고지대(해발 300~1500m)에 위치한 지방성으로 연중 기후가 18~27°C로 온화하여 친환경 채소, 화훼, 차와 커피 주산지로 유명하다. 현재 하이테크 농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기농업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람동성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지난해부터 유기농업 관련 사업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랏시에 법인을 개설한 휴살림에게 베트남 유기농업 발전을 위

한 MOU 체결을 요청해왔다. 농업과 관광이 주요 사업인 람동성에서 농업 분야 주요 파트너로 휴살림을 선택, 협업 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향후 휴살림은 람동성이 추구하고 있는 자연생태보존형 개발에 발맞추어 농업발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휴살림은 4월 베트남 달랏시에 위치한 달랏대학교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입주 후 베트남 토질 개선 및 유기농업 정착을 위해 토양분석 및 컨설팅과 미생물 연구 개발, 유기농법 보급 관련 업무를 농과 대학과 협업할 예정이다.

## 지금 현장에선



## 모종 냉해 입지않도록 관리

### 아산 홍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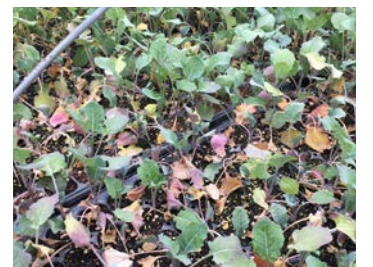
꽃샘추위로 모종이 냉해를 입기 쉬운 시기였다. 이럴 땐 휴살림 빛모음과 바이오숨을 처리해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사진은 파종하고 13일째의 모종 상태이다. 파종시 빛

모음과 바이오숨을 희석해 관수했으며, 첫 잎이 나왔을 때 다시 빛모음과 바이오숨을 희석해 시비했다. 그 후 7일 뒤 바이오숨을 추가로 시비했다. 관수로 빛모음을 희석한 결과 상당히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나게 느껴진다.

## 과습피해 줄이려면 환기 필요

### 괴산

육묘에도 긴요한 관찰이 필요하다. 기온이 내려갈 때 환기를 하지 않고 하우스를 밀폐할 경우 과습으로 인한 피해(사진)를 볼 수 있다. 병을 방제할 때는 휴살림 모두싸이나 토리, 세머루 등을 이용하고, 영양을 줄 필요가 있을 때



는 잎나라, 빛모음, 바이오숨을 처리해주면 좋다.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휴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 장정우창 | **편집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28126)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28138)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28000)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휴살림연수원**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친환경 고품질혼합유박	토양관리용 미생물발효유기질	고품질 발효아미노산그래놀	토양관리용 발효유기질펠렛
양분과과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	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흙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	Non-GMO 대두박이 함유되어 질소 및 양질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되어 토양항균력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된 발효유기질 펠렛. 피마자박이 배제되어 리신 독성에서 안전합니다.
 <p><b>휴나라유박</b> 친환경 혼합유박-펠렛(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 공시-3-3-189</p>	<p><b>직거래특별할인판매중</b></p>  <p><b>휴살림균배양제</b> 고품질토양미생물제(20kg) +유기물 40% 이상 공시-3-3-152</p>	 <p><b>휴살림 아미노볼</b> 아미노산 그래울(15kg) 특허미생물처리(항균) 7.5-2.5-1 공시-3-3-191</p>	 <p><b>휴나라 발효펠렛</b> 균배양제 펠렛형(15kg) 주장박, 대추박, 부식산 사용 특허미생물처리(항균) 공시-3-3-192</p>
<p>친환경 유기농자재</p> <p>목록 공시품</p>	<p>친환경 유기농자재</p> <p>목록 공시품</p>	<p>친환경 유기농자재</p> <p>목록 공시품</p>	<p>친환경 유기농자재</p> <p>목록 공시품</p>

## 사진으로 보는 3월의 활동



### 한살림생산자연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지난 2월 28일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한살림생산자연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1생산자 1토박이 씨앗 지키기 약속'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씨앗나눔을 하는 농장, 품종별 맛을 평가하기 위해 시식회를 연 부여딸기농장 등이 회원들을 맞이했다. 외부인사 소개 때에는 흠살림을 반갑게 소개해주었다. 총회 중에는 해남의 청년농부인 김단 씨가 가치를 생각하는 농업 공동체 모임인 미세마을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 양평 한살림 회원 대상 간담회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양평 한살림 회원을 대상으로 한 흠살림 간담회가 열렸다.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자로 선정된 흠살림푸드는 지난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주최한 추진계획보고회에 참석했다.



###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와 현장평가회

지난 3월 22일 전북 부안의 산들바다 공동체를 방문하여 회원들과 함께 흠살림연구소의 농림부 연구과제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지난해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금년도 연구과제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를 협력하는 자리였다.



### 베트남 람동성 투자 컨퍼런스 참여

지난 3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베트남 람동성(달랏시) 투자 컨퍼런스가 열렸다. 베트남 람동성장과 달랏시장을 비롯해 람동성 각 분야 공기관 청장, 20여명의 베트남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주요 개발 프로젝트들을 직접 설명했다.



## 한국유기농인증원

한국유기농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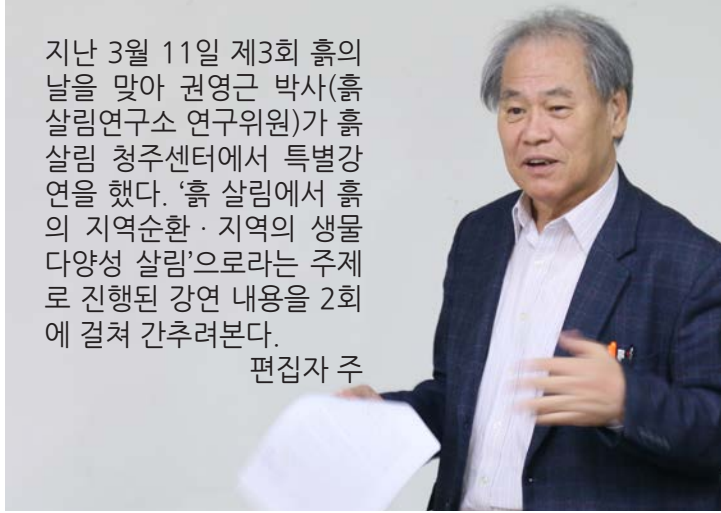
한국유기농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간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지점 주소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목빌딩 408-2호  
전화 043-715-9526



#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땅의 수난' 시작

**흙의 날 기념 권영근 박사 특별강연  
- 흙 살림에서 생물 다양성 살림으로**



지난 3월 11일 제3회 흙의 날을 맞아 권영근 박사(흙살림연구소 연구위원)가 흙살림 청주센터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흙 살림에서 흙의 지역순환·지역의 생물 다양성 살림'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 내용을 2회에 걸쳐 간추려본다.  
편집자 주



3월 11일 제3회 흙의 날을 기념해 권영근 흙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흙의 지역순환과 지역의 생물 다양성 살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 1. 흙이란 무엇인가? <불 균 일계(不均一系)>로서의 흙

<흙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흙은 죽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흙은 죽었다>라고 하여야 <흙을 살리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흙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이다. 흙이란 지표층을 덮고 있는 무기물·유기물로 이루어진 '분립체(粉粒體) 층' 전체를 말한다. 그 상부는 대기권에 접하고, 하부는 암석권(巖石圈)에 접하여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粉粒體=흙이 아니라는 것이다. 흙은 「粉粒體 층의 전체」, 결국, 粉·粒狀인 토양입자(固相)와 그 입자공극(孔隙)을 차지하는 토양공기(氣相)와 토양용액(液相)으로 이루어진 3가지 상계(相系)이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세균이나 방선균(放線菌) 등의 미생물이나 작은 동물도 흙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킨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적인 평화가 오는 듯하면서, 인구폭발의 시대로 되었다. 이것을 식량공급의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화학화, 다수확작물(HYV)인 F1종자 그리고 관개시설의 보급에 의한 '녹색혁명형 농업' 이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에 걸쳐서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다비(多肥) 내성 품종이 개발·이용되고, 관개면적이 급증했다. 이 상당 부분은 농예화학(農藝化學)적 토양관에 토대를 둔 물질 차원의 연구성과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

와서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 세계의 도처에서 급 브레이크가 걸렸다. 유럽에서는 초산대 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되었고, USA와 이스라엘 등의 관개시설 이용형 농업지역에서는 「차수저(tea spoon)로 작물에 급수(給水)한다」고 말할 정도로 효율성 높은 미량 관수기술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고갈, 수위저하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토양의 염류집적이 문제로 되었다. 발전 도상국에서는 인구 급증에 따라 1인당 경지면적의 감소경향이 지속되면서, 내국인민의 추진에 수반하여 삼림파괴, 급격한 토양침식이 재차 문제로 부상되었다.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에 "Pedology(soil science, 토양 형태학·토양생성 분류학)의 땅"이었던 소련은 정치체제의 변혁과 그후의 혼란속에서 국토의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곳곳에서 인간의 잘못으로 <흙의 인내>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5.16 쿠데타 이후, 소위 「농업 근대화」와 「농촌개발」이 시작되고, 특히 1972년 소위 「10월 유신」 이후 통일벼를 중심으로 한 「녹색혁명형 농업」(=유신농업)의 강제농정이 추진되면서, 땅이 땅으로서 대접 받지 못하고 <땅의 수난>이 시작되면서 생물 다양성과 작물의 재래품종이 급속히 사라지기 시

작하였다. 이와같이 <토양의 불 균일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관하여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한, 식물-토양계·식물-대기·식물-수권(水圈)의 관계를 현실에 적합하게 종합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흙 살림」은 흙의 무엇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 2. 농업 근대화·농업생물 다양성의 消失, 개발과 생물다

## 다투입으로 자연환경 파괴 생물 다양성·재래품종 감소

## 생태순환의 중심은 농경지 논·무논 중심의 전작이 중요

### 양성 보전의 Trade-off 관계

5.16 쿠데타 이후, 소위 「농업 근대화」가 시작되고, 특히 1972년 소위 「10월 유신」 이후 통일벼를 중심으로 한 「녹색혁명형 농업」(=유신농업)의 강제농정이 추진되면서, 작물의 재래품종이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재래품종은 그 지역의 자연조건 뿐만 아니라 작물이 재배되어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조건에도 적응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근대적 육종과 같은 높은 강도의 선발(選拔)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내에 일정 정도의 다양성을 남겨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재래품종

의 감소는 「농업 근대화」와 「농촌개발」과 동시에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농작물 다양성의 상실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파괴하고 있다.

농업연구에 대한 투자로 개발된 품종이 조건이 정비된 지역에 채용되어서, 농업 생산성을 상당히 향상시키게 되자 「녹색혁명형 농업」의 기술적 성공은 증명된 셈이었다. 그래서 이같은 품종개량이 생물 다양성을 농업·농촌개발을 위하여 이용한 최초의 명시적 사상(事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육종가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생각이 '유전자원'이라는 단어의 배경에 있게 되었으며, 발전하여서, 재(財)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원료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육종재료로서의 이용이 전면에 대두하게 되었다. 그래서, 작물의 '유전자'가 '자원'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고, '유전자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대표되는, 육종재료로서 유전자원이 이용되고,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녹색혁명형 농업」은 다투입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와 생물 다양성 파괴·생태순환 파괴·종자와 작물 다양성 파괴 및 토양침식과 사막화 등, 국내에서 지

역 및 농가 간의 격차확대, 농촌사회의 자율성 상실 등의 자연과 경제사회의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 3. 농업에서 흙, <논·무논·답(畓·水田)>의 중요성

자연순환·생태 「순환」·농업 「순환」의 '중심'은 땅·흙·농경지이다. 땅·흙·농경지 중에서도 밭이 아니라 논·무논(畓=水田)이다. 한국 농업에서 논이 왜 중요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 「흙 살리기」를 말하는 것은 안된다. 특히 유기·순환농업을 떠벌리려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에서 「땅 살리기」의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논·무논과 밭 간의 전작(轉作)이었다. 특히, 한국식 유기·순환농업에서의 땅 살리기와 방제의 핵심은 논·무논을 중심으로 한 전작(轉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YV·F1 「종자」의 도입에 의한 「녹색혁명형 농업」(=유신농업)이 강제농정으로 시행된 이후, <식량·양식 중심의 농업>은 '돈 중심의 농업'='화폐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으로 변모되면서, 특히, WTO와 한미 FTA 출범 이후, 쌀수매정책 등이 사라지면서 농업의 형태는 「논 농업·무논」 중심에서 「밭 농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서, 농경지로서 <논·무논·답(畓=水田)>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 한 구덩이에 한 알만 심어서 '홀애비콩'

## 윤성희 소장의 종자 이야기<6>

### 토종콩<3> 우리의 콩을 찾아서 下

■ 홀애비밤콩과 한아가리콩  
홀애비밤콩(홀아비콩)은 고농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민요에도 곧잘 등장한다. 콩 이름이 재담의 소재 자체로도 재미있지만, "이팔청춘(독수공방) 푸르데콩, 이팔청춘 소년콩, 외톨백이는 홀애미콩" 등 종자 이름으로 기발한 대구를 만들기도 했다.

鰯夫豆 환부두 【짜지는 검푸른색이고 콩은 연누런 색이며, 콩 한알의 크기가 일반콩 두알과 맞먹는다. 맛이 달고 좋다. 민간에서는 하나두(韓兒豆)이라고 부른다. '한아(韓兒)'라는 것은 한 개를 뜻하는 사투리이다. 이 콩의 파종법은 반드시 한 구덩이에 한알을 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부룩하게 뭉치고 섞여서 열매가 적으니, 이 때문에 하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鰯夫(홀아비)라고 칭한 것은 이 콩이 홀로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조선후기, 서유구』

누른색의 큰 콩을 '환부태[鰯夫太]'라고 하는데 따로 심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며, 맛이 매우 깊고 쌀에 섞어서 먹으면 삶은 밤처럼 달다. 『백운필, 조선후기, 이육』

고문헌에서 보듯이 홀애비콩은 껍질색은 연한 노란색이지만 메주용 콩품종과 달리 아주 오래전부터 소문난 맛난 밤콩이었던 것이다. 콩

껍질이 갈라져 있어서 볼품없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 맛을 못 잊는 극소수의 농가만이 자급을 위해 재배하고 있을 뿐 시장에서 자취를 찾기 어렵게 됐다.

임원경제지에서는 홀애비콩 특성을 매우 상세히 적어 놓고 있다. 보통의 콩이 3알을 심어서 키우는데 반해서 이콩은 한포기만 심을 것을 당부한다. 홀아비처럼 외롭게 심어야 제대로 알곡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작명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재래종 콩들이 키가 무성해지면 스스로 쓰러져버리기 일쑤이며, 한번 쓰러진 콩은 거둘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복을 주거나 키가 너무 크지 않도록 손을 잘라주는 등의 재배법을 개발해왔던 것이다. 하나콩(한아가리콩)에 대한 설명도 한구멍에 한 포기씩만 자라도록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간혹 콩알이 상당히 커서 아가리가 딱 찰 정도의 품종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한 알씩 갈아야(농사지어야) 하는 콩의 특성을 반영한 작명법이다.

#### ■ 선비잡이콩과 매눈이콩

黃大豆 황대두 【누런콩. 짜지는 희고 콩은 누렇고, 보리를 베고 파종한다. 누렇고 양쪽 뺨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민간에서 유집(儒執)이라 부



선비잡이콩.

른다】 『임원경제지, 본리지 편』

누런콩은 요즘말로 황태나 백태를 얘기하는 콩이지만, 이어져 나오는 설명은 儒執 즉 "선비잡이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배꼽을 중심으로 콩 좌우로 검은색 큰 점이 보이는 콩으로, 선비가 먹 문은 손으로 콩을 집는 바람에 노란콩 양옆에 검은 색깔이 들었다는 의미로 설명되곤 한다.

콩껍질 색깔은 단색이 많지만 얼룩(혼색)이 있는 콩도 꽤 된다. 혼색콩을 '얼룩콩'이라 하는데 검은색 둥근무늬가 있는 것을 '우렁콩', 둥근 점무늬가 있는 것을 '매눈이콩'이라 한다. 배꼽을 중심으로 말안장 모양으로 검은 반점이 있는 콩을 선비잡이콩(선비재비콩)이라 한다. 정확유의 농가월령가에 나오는 '매눈이콩'도 매의 눈을 닮았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민간에서 예전부터 "선비잡이"로 부르던 말을 한자로 기록하면서 선비儒 잡을執이 되었을 것이다. 비슷한 말인 선비콩, 정승콩 등으

로 불렸을 것이고, 콩의 모양만으로 보면 재비콩이나 개눈깔콩 새눈깔콩 등으로도 불렸을 것이다.

이 선비잡이콩은 황태나 백태의 주된 용도인 장을 담그거나 두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밥에 넣어먹는 콩죽, 밤콩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다.

■ 아주까리밤콩과 등티기콩  
콩에 나타나는 아주까리 문양의 비밀은 색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트멜론과도 같이, 콩껍질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무늬이다. 껍질이 갈라지면서 속살(떡잎, 자엽)이 보이는 것이 꼭 아주까리(피마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주까리밤콩이나 피마자콩으로 불린 것이 실제로는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작물이다.

아주까리밤콩은 생김새가 독특하기는 하지만 걸보기가 좋은 콩은 아니다. 그런데도 왜 오랜 세월 도태되지 않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을까. 이 콩을 희귀성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심어온 것 같지는 않다. 콩껍질이 잘 터지므로 탈곡할 때 콩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 더 발생하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껍질이 많이 터져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콩을 물에 불릴 때 빨리 흡수되는 이점이 있다. 빨리 흡수되면 밥하는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두부를 만들거나 할 때 껍질이 쉽게 분리되므로 도움이 된다.

껍질이 갈라지기는 하지만 등 쪽에만 약간 갈라지는 콩을 민간에서는 "등티기콩"이라고도 한다.

글 윤성희 토종연구소 소장



아주까리밤콩은 껍질이 자연스럽게 갈라져서, 물의 흡수가 빨라 조리가 편리하다.

## 흡살림 생육촉진·품질향상용 자가 액비 제조세트



**활인산 10L**  
양분가용화, 발효, 생육촉진  
공시-3-2-33



**빛모음 500ml x 2병**  
뿌리보호, 활착, 세균발달  
공시-3-3-54



**생선아미노산 10L**  
유기농 액비, 양분공급  
공시-3-2-39



**바이오숨 10L**  
생육밸런스 조절, 미네랄,  
당도수량증가  
공시-3-2-34



**해초 500ml X 2병**  
비대촉진, 천연호르몬, 아미노산



**당밀 10L**  
발효 미생물 탄소원, 미량요소



25말(500리터)통  
공기 발생기

# 주위 청년 농부들~ 관리기 앞으로 모여!

## 아가씨의 꿈이 자라는 허브 농장<6>

###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해 공동작업

매화 땅울이 터지는 3월의 나날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가득하다. 별이 잘 드는 밭 가장자리에는 보송보송한 솜털 가득한 썩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마을 어귀 화단에는 작년에 봤던 수선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을 내민다. 긴 겨울 추위 속에서 떨었던 고수와 루꼴라는 아직 여름도 안 되었는데 이전보다 두 배는 더 빨리 자라나는 듯하다. 한 낮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할 때면 벌써 짧은 소매 옷을 입고 긴 바지를 접어 올려야 할 정도이다.

날이 풀릴수록 초보 농부의 하루는 점점 길어진다. 먼저, 겨우 내 멈춰 있던 과수원 관수시설도 정비했다. 작년 가을 모터에 찻던 물을 모두 빼고 보온재와 비닐로 잘 동여매었지만 4개의 모터 중 2개가 터져버렸다. 문제의 원인은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원인이었다. 나름 월동 준비를 했지만 밤낮의 기온 차이로 모터 내부에 결로가 생겼고, 그 물방울들이 모

여 얼어붙으면서 모터 일부가 파손된 것이다. 모터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파이프도 일부 손상되어 있었다. 혹시나 꽃샘추위 동안 모터가 다시 얼까 염려 되어 시설 수리는 조금 미루기로 결정했다. 내년에는 모터 덮개를 만들어 씌우거나 보온재를 좀 더 여러 겹 덮어야만 할 것 같다.

더 따뜻해지면 노지에 심어야 할 채소 및 허브 모종들과 수확 후 빈 하우스에 새로 허브를 파종하기 위해 종자들도 넉넉히 준비했다. 서울에서 열렸던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씨앗 나눔'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여러 가지 토종 씨앗들과 화원에서 구입한 꽃씨들도 모아 놓았다. 3월 안으로 파종이 모두 끝난 뒤, 밭과 육묘장에 돌아갈 새싹들이 일렁일 생각을 하니 새삼 가슴이 뛰었다. 봄이 왔구나! 어느 새 봄 햇살은 사방에 내려앉아 초록빛으로 쌓이고 있다.

바쁜 일상이 계속 되고 있지만 하루 시간을 내서 옥천 나무 시장을 방문했다. 처음



농장의 매화에 꽃이 피고 고수와 루꼴라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봄이 왔다.

알게 된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화초들로 가득한 신세계를 마주하여 정신이 없는데, 엄청난 인파로 북적여 한걸음 내딛기가 어렵다. 오래전부터 꼭 키우고 싶었던 푸룬 묘목을 구매했다. 대학생이었을 때, 처음 독일에 도착했던 8월, 마트마다, 시장 과일가게마다 가득했던 푸룬 생과를 보고 참 신기했었다. 가격도 다른 과일보다는 저렴해서 가을까지 즐겨 먹곤 했다. 그 달달한 맛과 쫄쫄한 식감이 한국에 온 후에도 가끔 생각이 나서, 이 나무는 언제 수입되나 귀농 준비를 하는 중에도 몇 번이나

찾아봤었다. 지금은 점점 더 많이 보급 중이어서 온라인으로 푸룬 생과를 판매하는 농가들도 꽤 있는 모양이다. 한차례 비가 내린 후 밭을 갈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기를 대여하여 밭을 갈았다.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나름 큰 작업이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청년 농부 네 명이 모두 모였다. 1톤 트럭에 사다리를 대고 관리기를 올리고 내리는 일도 큰일이고, 관리기를 몰고 가다 유턴하거나 좌·우회전 하는 것이 새내기 농부들로서는 참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래도 만나질 내내 갈아서 포슬해

보이는 땅을 보니 뿌듯했다. 현재의 허브 하우스 자리는 작년까지 논이었던 땅이라 하단부에 산 흙을 들여 성토를 하였지만 아직 물빠짐이 좋지 않고 색도 거무튀튀하다. 올해에는 서천 친환경 쌀 재배 단지에서 벵짚과 왕겨를 구해 잔뜩 갈아 넣을 계획이다. 밭 한켠에 조그마하게라도 퇴비를 만들어 쌓아보는 것도 작은 목표 중 하나이다. 올 봄, 많은 계획들 속에 한해 농사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었던 만큼, 가을걷이까지 즐겁고 순탄하게 땅을 일궈 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글 이수진 농부



### 휴살림 잘잡아

토양처리용 살충제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재  
뿌리가해 해충 방제에 효과적  
입상형태로 기계 살포 가능  
공시-3-5-015 / 식물추출물 함유



### 휴살림 잘잡아

모판처리용 살충제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재  
강력한 살충력을 지닌 식물추출물 함유  
입상형태로 이앙 당일 모판처리  
공시-3-5-015

#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 쉽지않네요

##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딸기농장<6>

### 귀농 후 유턴하는 사람들 안타까워

귀농해서 정착하기 참 쉽지 않다. 얼마 전 귀농 3년 여 만에 다시 되돌아간 농부가 있다. 딸기농사 3번만에 다른 일을 하러 떠난 것이다. 농사로 생각하는 만큼 소득이 되어 주지 않은 모양이다. 딸기농사는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시설이 좋을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초기 자본이 넉넉지 않으면 금세 불안해진다. 게다가 아이들까지 있다면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사로 여유있는 소득은 쉽지 않다. 한 해 생활비와 다음 농사를 이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다양한 활동까지 생각한다면 농사로 쉽지 않은 않다.

농사는 꾸준히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여유있게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런 생각에 욕심도 부리게 되고, 농산물이라도 폭락하게 되면 한 해 소득이 들쭉날쭉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작물만 하기엔 조금 불안하기도 하다. 소득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아야 조금은 안심되고 소농이 공판장에 농산물을 내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직거래를 해

야 한다. 많은 귀농인들이 딸기농사 하면 소득이 된다는 부푼 꿈을 안고 투자를 하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박이란 없다.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환경에 부딪치면서 자기농사의 매뉴얼을 차근차근 만들고 경험치를 쌓는 일만 해도 10년이면 10번의 경험밖에 안되는 것이다. 귀농을 포기한 농부 또한 딸기농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작을 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는 땅을 제외한 시설만 구입을 했는데 귀농인들에게 좋지 않은 사례이다. 시설을 구입했을 때는 10년 이상 농사하려고 구입했을 텐데 땅의 주인과 좋은 관계일 땐 상관없지만 언제든 사람과의 관계는 틀어질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을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딸기농사만을 했기에 6개월 정도는 소득이 있지만 6개월은 소득이 없다. 그해 딸기 공판시세에 따라 한 해 소득이 결정이 되니 소득이 불안하다. 결국엔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농사일은 혼자하기엔 버거운 부분이 많다. 올해는 특히나 딸기 시세가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지다 보니 귀농의



요즘 농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멋진 삶을 꿈꾸며 귀농했다 현실에 부딪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쓴 고배를 마시지 않았나 싶다. 아이들과 함께 더 멋진 가정을 꾸리려 왔지만 좀더 힘들어진 것 같다. 다른 문제들도 그를 떠나게 하는데 한몫 한 것 같다. 농사를 하지만 농부가 되지 못한 경우이다. 우리도 처음 딸기농사를 하려고 비닐하우스를 임대하려는데 농지원부를 해주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셨다. 아마 직불금 때문일 것이다. 귀농인이 민원을 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다. 관리를 하는 품질관리원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야 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귀농인은 부당함을 알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원만하게 마을에서 살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한번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귀농인은 그 마을에서 낙인찍히듯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 농사를 하면서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부가 받아야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사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 결국은 마지 못해 농지원부를 해주어도 직불금은 포기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좀 알아서 어찌 시스템으로 될 수 없을까. 귀농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유인책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착 귀농하고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각자도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사를 배워가며 소득내기도 어려운데 정착하기까지 농사의 현실에 부딪치고 게다가 사람에게까지 부딪치면 정말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러기 전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글 이남연 농부

## 유기농업 발전

# 농사리 과 대신택배가 함께합니다.

**대신정기화물(주)** 국내택배서비스, 노선(정기)화물운송, 제3자물류

**대신국제운송(주)**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화물운송, 복합운송주선

**대신물류개발(주)** 물류연구 개발 및 건설, 시설유지보수 관리

**대신복합물류(주)** 무역 유통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대신택배는 농촌사회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17년 12월 제 5회 농촌사회공헌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대신택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327-6)

Tel. 고객센터 043-222-4582 | 영업부 070-4313-5410~8 | 대표번호 043-255-3211 / Fax. 고객센터 043-255-3220 | 영업부 043-256-3220 | 대표번호 043-255-3220

휴살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 상자텃밭 만들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싱싱한 채소와 식물을 가꿀 수 있는 상자 텃밭! 한 번 도전해 볼까요?



### 1 휴살림 그로우백을 준비합니다.

열매 맺는 채소와 키가 큰 식물은 세로형 그로우백에, 입을 먹는 채소와 키가 작은 식물은 와이드형 그로우백에! 귀여운 다육이나 작은 화초는 미니그로우백에! 천막원단으로 만들어 가볍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빠짐 구멍과 손잡이가 있어 화분으로 안성맞춤!

### 2 준비된 그로우백에 흙을 담습니다.

‘휴살림 작은텃밭’에는 흙과 양분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로우백 한 개에 작은텃밭 18리터 한 포가 쏘옥! 채소와 원예식물, 다육이 재배에 좋습니다.



흔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 3 모종을 심습니다.

- 1 먼저 모종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합니다.
- 2 물을 듬뿍 주고 모종을 심습니다.
- 3 흙으로 잘 덮어 줍니다.
- 4 다시 한번 물을 줍니다.

### 4 식물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지주대를 세우고 결순을 제거해 줍니다. 결순을 따주면 식물체가 튼실해지고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결순 제거란? ✨

식물체의 원 줄기와 겹가지 사이에 또 돌아나는 순을 말합니다. 결순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뚝’하고 꺾어서 뜯어내 주세요!



흙을 너무 꼭꼭 누르면 모종이 숨을 못 쉬겠지요?



상자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살림균배양체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밭을 만들어 줍니다. 5평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



상자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흙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잎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잎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진달래그린



실내텃밭으로 안성맞춤  
**그로우백 21L**  
잎채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빠짐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



▶ 진딧물과 곰팡이가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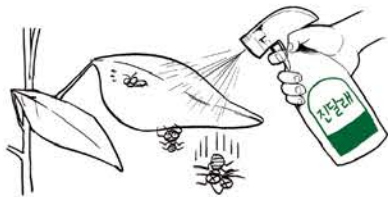
식물 잎과 줄기에 하얗게 낀 곰팡이 증상이 보일땐  
 잎살림s와 모두쌩으로 해결!!  
 식물이 진딧물, 응애 때문에 괴로워할 땐  
 진달래 그린과 싹들어로 해결!!



진딧물



흰가루병



▶ 식물이 힘이 없어 보인다구요?

식물에게도 영양제를 챙겨주세요.  
 식물에 생기와 활력이 필요할 때!  
 비타-x와 잎나라를 식물의 잎과 뿌리 주변에 수시로 뿌려줍니다.



▶ 고생한 식물에게 밥을 주세요.

풍부한 아미노산 함량(약 45%)으로 작물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좋은  
 '텃밭용 아미노볼' 한 스푼을 흙 위에 솔솔 뿌려줍니다.  
 이 때 거름이 식물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흙나라 주기

흙살림  
 함께 하는 도시농업

# 텃밭 농사 짓기

자투리땅만 있으면 어디서든 도시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텃밭을 일구어 볼까요?



① 농사짓기의 시작! 건강한 흙을 만들어 줍니다.

작물을 심기 2~3주일 전 흙살림 균배양체 그린을  
 흙과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텃밭 5평당 1포(10Kg)이면  
 충분합니다. 척박한 땅에는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겠지요?

② 건강해진 흙을 잘 고른 후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이랑과 고랑을 만듭니다.

이랑은 작물을 지지해주고 물 빠짐을 좋게 해줍니다.  
 고랑에는 거름을 줄 수 있지요.

③ 잘 정돈된 밭에 원하는 모종을 심어주세요.

호미나 모종삽을 이용하여 작은 구덩이를 낸 후  
 모종을 하나씩 꽂아주고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④ 무럭무럭 자라난 식물체를 위해 지지대도 세우고  
 결순도 제거해 줍니다.

키가 큰 작물은 지지대로 고정시켜야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 “내 손끝의 감각으로 버섯을 키운다”

## 생산자를 만나다- 이주영(괴산 표고버섯)

“친환경농업은 사람이 먼저 친환경이 되어야 한다.”

충북 괴산에서 유기농으로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는 이주영 씨는 올해로 친환경농업 농사를 지은 지 19년차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아 번성하기도, 갖가지 파동으로 침체를 겪기도 했다. 이 농부는 이런 변동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다. ‘정직하게 농사짓는 마음’이 바로 친환경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그의 거짓 없는 버섯농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경험과 꾸준한 연구로 최상의 재배 환경 터득

■ 우리농업의 미래는 친환경 이주영 씨가 느닷없이 신발을 벗었다. 신고 있는 발가락 양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제조제인 그라목손을 뿌리면서 받게 된 피해야.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어.” 양말을 벗은 그의 발가락 사이는 무좀에 걸린 발처럼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 40년 전쯤 입었던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화학농약의 위험성을 몸으로 느끼면서 친환경농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을 친환경농업에서 찾은 것이다. 때마침 이태근 흙살림 회장과 이도훈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가 유기농업을 권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5~6년이 지나고 나서는 친환경농업 전도사가 됐다. “나도 이주영 씨한테 세뇌당했다”고 말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친환경농사를 알리고 가르쳤다.

■ 유기농 표고버섯에 도전 이주영 씨의 친환경농업은 수도작(논농사)에서부터 시작했다. 이어 양채류와 고추, 콩 등을 거쳐 전 품목으로 넓혀갔다. 이때 가장 힘든 것은 육묘였다. 다행히 흙살림에서 유기농 상토를 판매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면서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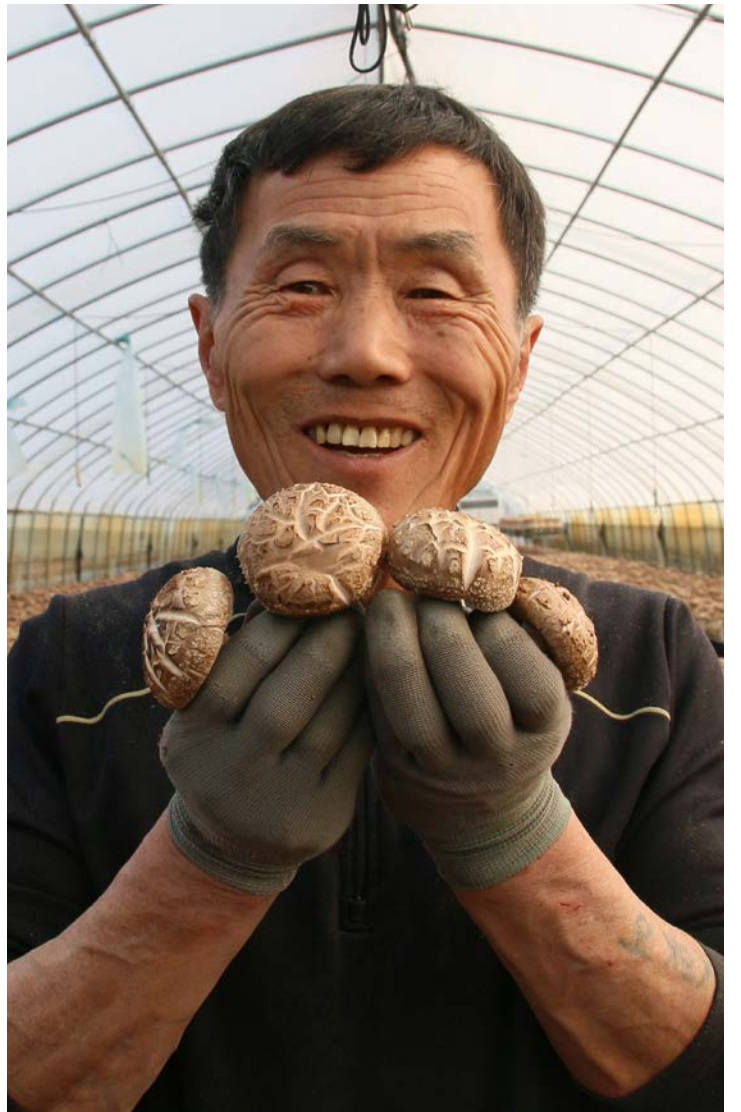
한기(겨울)에는 느타리버섯을 키웠다. 하지만 곧 공장형 느타리버섯 생산시설이 생기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재배를 포기했다. 버섯사를 비워둬야만 하는 상황에서 친구가 배지 표고버섯을 함께 키워보자고 권유했다. 함께 종균을 분양받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친구와 이 씨만이 배양에 성공했다. 이때의 성공을 발판으로 지금까지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다. 9년 정도는 분양을 받아서 키워지만 지금은 직접 배지를 만들어 배양하고 있다. 일반 배지는 보통 1.3kg 정도인데 비해서 이 씨가 만든 배지는 1.5kg 가까이 나간다. “표고버섯을 키워보니 나중에 양분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배지 양을 늘려가며 연구해서 가장 알맞은 양을 찾은 거야.” 그의 버섯 재배는 경험과 연구의 산물이다.

■ 자연에 맡길 줄 아는 농사 “버섯농사는 자연에 맡기는 것이다. 사람은 수분관리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주영 씨가 말하는 표고버섯 농사의 비결이다. 표고버섯이 꽃이 핀 것처럼 갈라진 모습을 ‘화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빛을 받아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해가 나는 쪽 하우스 창을 열어 빛을 맞도록 해준다. 이와 함께 습도조절을 잘

해주는 것이 관건이다. 이주영 씨는 버섯과 배지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습도의 상태를 판단한다. “요즘은 스마트팜으로 온도와 습도 관리를 자동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오산이다. 버섯은 단순히 습도 몇 %로 맞춰 자동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몸소 체험하고 터득해야지만 최상품의 버섯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또 버섯사 주위의 풀은 뽑지 않고 어느 정도 자라도록 놔둔다. 이 풀이 습도 유지의 역할을 해주면서 벌레들이 숨을 장소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을 치지 않기에 거미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벌레 걱정을 던다고 한다.

이렇게 버섯농사를 자연과 함께하듯 친환경농사도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게 이주영 씨의 생각이다. “유기농업은 서로 기술을 공유하면서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먹을거리에 대한 책임이 나(농부)에게 있다는 사명감으로 정직한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영 씨의 농장에선 그의 각오만큼이나 아무지게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다.

글 이방현 기자



최고의 버섯은 데이터 보다는 몸으로 느끼는 체험이 쌓여야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주영 씨.

### 이주영 씨가 말하는 최고의 표고버섯 재배법 빛을 골고루 잘 받아야 화고 형성



표고버섯은 말리지만 않으면 죽지 않는다. 누구나 수확을 할 수 있다.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버섯하우스는 남북으로 짓고 아침해가 뜨면 동쪽을 개방해 빛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가 질 땐 서쪽 창을 개방한다. 온도는 30℃를 넘으면 종균이 정지하고 36℃ 이상에서는 종균이 소멸한다. 온도 조절은 자동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키워야 살도 찌고 맛도 좋다. 겨울에 영하 6~7℃까지는 얼었다 녹으면서 다시 성장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말라 죽는다.

종균에서 버섯을 나오게 하는 것은 온도차의 충격이다. 지하수를 이용해 배지에 부여준다. 지하수 물은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작용한다. 배지와 보통 15℃ 차이가 났을 때 효과가 좋다. 배양은 20℃ 온도에서 4개월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수확 주기는 여름엔 12~15일, 겨울 20~25일 정도이다. 배지 하나 당 평균 10~12번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 수확이 되풀이될수록 품질은 떨어진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3단 4단으로 쌓아올려 키우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빛이 들어오지 않고 물만 잔뜩 먹여 키우는 꼴이다. 집에서 표고를 말려 먹을 땐 햇볕에 말려야 한다. 비타민 D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유기농 표고버섯 배지는 어떻게 만들까



유기농 미강 + 참나무 톱밥 +탄산칼슘을 무게비율 15%, 84%, 1% 비율로 섞어서 배지를 만든다. 수분율은 52~55%를 유지한다.(맨 왼쪽 사진) 잘 섞은 배지는 봉지에 담는다.(가운데 사진) 봉지에 담겨진 배지를 100℃에서 4시간 살균한다.(맨 오른쪽 사진은 보일러 모습.) 고압이 아닌 양압 스팀으로 처리한다. 살균된 배지는 공조 시스템과 헤파필터로 거른 냉각실에서 식히고 종균을 접종한다.

# 유기물 투입으로 길항미생물 증식

## 흙 살리기<15>

### 연작장애를 막는 생태적 방제법

▲연작에 의한 영양장애의 발생과 연작 장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작장애의 발생은 통칭 채소 주산지라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최근 연작장애로 인해 주산지가 쇠퇴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주산지가 이동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작장애가 심해지면 무, 토마토, 파의 생육이 나빠지고, 밭에 따라서는 수확이 전무한 곳마저 나타난다. 또 무의 생육이 저하되고, 배추의 속이 부패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과거부터 널리 알려진 채소 주산지에서 여러 가지 생육장애가 발생한다. 채소의 영양장애는 최근 많

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반드시 단일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생태적 방제법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흙 속에 있는 길항미생물의 활성을 높이고 병원생물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길항미생물을 직접 흙에 접종하는 방법과 유기물 및 그 밖의 자재를 사용하여 길항미생물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활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품종, 대목(접본)을 사용하는 것도 연작장애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 파

종기를 바꾸거나 이식재배함으로써 병해를 회피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현재 토양병충해는 약한 뿌리와 상처 난 자리에 침입하기 쉽기 때문에 다비에 의한 농도장애와 토양 PH의 적정화, 깊이갈이, 유기물 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건전한 뿌리를 키워 병해 저항성을 높이는 것이 연작장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발병을 억제하는 토양이란

재미있는 것은 연작장애의 경감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지 않더라도 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연작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채소산지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연작하더라도 병충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흙을 발병억지 토양이라 부르고 있다. 무의 위황병(萎黃病, 식물의 잎이 백색 또는 황백색으로 변하는 병)은 적토 지대에서 많이 발생하며, 흑묵토(黑墨土) 지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방선균이 병원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양파의 건부병(乾腐病, 조직이 말라죽자 이내 건조 수축하는 부패병의 일종)은 미립질 부분이 많은 흙에서는 발병하기 어렵고 모래흙에서 발병하기 쉽다.

이러한 발병억지 토양의 존재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바나나 과수원에서는 바나나를 심으면 바로 푸다리움균에 의한 위축병에 걸리는 흙과, 20년 이상 병이 걸리지 않는 흙이 있다. 병이 발병하기 어려운 흙은 보비력(保肥力)이 강하고, 양질점토인 몬모릴로나이트 계의 점토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발병억지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면 앞으로 인공적으로 발병억지토양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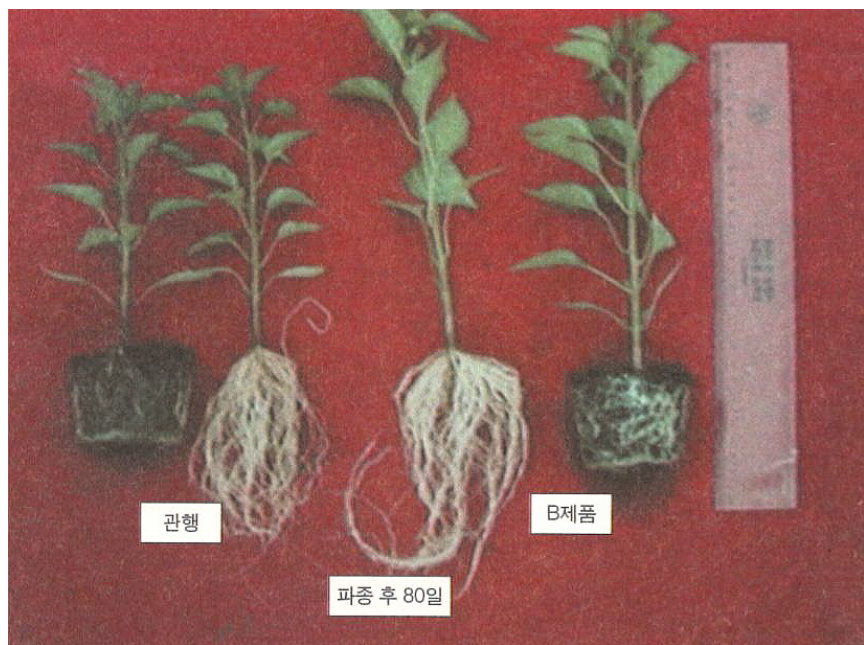
■ 지력은 낮아지고 있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유기물은 흙 속 생물에게는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식량이며, 또 흙의 구조를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퇴구비 등의 형태로 흙에 환원되는 유기물이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화학비료가 토양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력을 크게 낮추고 있다.

글 이태근 회장

##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15>

### 톱밥퇴비와 마사 혼합해 상토로 사용



톱밥퇴비 혼합상토 B제품

최초 퇴적을 한 뒤 2~3일이 지나면 발효온도가 60~70℃로 오르는데, 약 10~15일 정도 이 온도를 지속한 뒤에 온도가 떨어지면 1차로 뒤집어준다. 다시 10~15일 정도 고온을 유지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또다시 뒤집어준다. 이렇게 2~3회 이상 하면 일단 독소가 제거되고 잡균과 잡초 종자가 사멸되었다고 봐도 좋다. 이후 2~4개월 동안 후숙을 시키면 좋은 톱밥퇴비가 되는데, 후숙 단계에서는 월 1회 이상 뒤집어준다. 유효한 방선균류 등 다량의 미생물이 번식하도록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후숙시켜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퇴비를 마사와 혼합해서 상토로 사용하면 작물을 튼튼하게 재배할 수 있는 최고의 자재가 될 것이다. 고추나 토마토 같은 과채류는 구멍이에 톱밥퇴비를 종이컵으로 하나씩 넣어 정식한 뒤 가끔 관해 미생물을 엽면 살포하거나 관주하면, 고추에 생기는 골치 아픈 역병이나 탄저병은 물론, 토마토의 시들병이나 청고병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질소 함유별 퇴비의 종류와 상토(배양토) 제조법 요약

구분	배합비	발효방법	비고
고질소 함유 톱밥퇴비	톱밥 1,000kg 건조계분 400kg 쌀겨 30kg 발효제 1.5kg 수분 65%로 조절	비가림 시설 퇴적하고 1개월 정도 발효온도 65도 이상 10~15일에 1회 씩 뒤집기 4회 한 뒤 후숙	단기간의 다비성 작물 과수원에 좋음 3개월 이상 발효해 사용
보통질소 함유 톱밥퇴비	톱밥 1,000kg 건조계분 300kg 쌀겨 30kg 발효제 1.5kg 수분 65%로 조절	위와 같음	벼농사, 밭농사 시설원에 화분의 배양토 3개월 이상 발효해 사용
저질소 함유 톱밥퇴비	톱밥 1,000kg 건조계분 150kg 쌀겨 30kg 발효제 1.5kg 수분 65%로 조절	위와 같음	잡초방제 멀칭용 질소과잉 밭의 밑 거름 엽채류 파종하고 복토용 배양토(과채, 화훼) 3개월 이상 발효해 사용
상토 만들기	저질소 함유 톱밥 퇴비 50~60%(용 량비) 마사 20% 논흙 20%		유기질 발효비료 1%, 인산발효비료 2%, 초목회 1%, 훈탄 5% 추가하면 아주 좋음

부재료인 건계분과 쌀겨 대신 축분이나 유박, 혈분, 어분 등 질소가 들어 있는 여러 소재로 대체할 수 있다. 질소질이 많이 필요없는 인삼의 재배는 저질소 함유 톱밥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면 좋다.

글 석종욱 (사)흙살림연구소 대표



# 미세먼지 잡는 베란다 텃밭꾸미기!

봄맞이 텃밭꾸미기로 미세먼지도 잡고 건강도 챙기세요!

내용: 텃밭용 자재 **전품목 10% 할인**  
기간: 3월10일~4월17일 (23일)

**SALE**

상품문의 및 주문전화 : 1544-1092

쇼핑몰주문 :



## 휴살림 제철 농산물



성주 유기농 명품참외  
9,900원/1kg 24,000원/3kg



유기농 바나나 1.2kg(팩)  
8,000원



유기농 한라봉 1kg  
5,000원



무농약 대저토마토 800g  
6,000원



세척 사과 4입  
1,800원



주스용 토마토 3kg  
10,500원



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  
1kg 7,000원



친환경 토마토 1kg  
4,500원



친환경 방울토마토 1kg  
6,000원



저탄소 배 3입팩  
8,000원



저탄소 사과 3입팩  
7,000원



명이나물 장아찌 120g  
3,500원



깻잎 장아찌 120g  
3,000원



유기농 표고버섯(동고) 500g  
10,000원

## 휴살림 잡곡



국내산 서리태 500g  
11,000원



국내산 찰수수 500g  
7,000원



토종아주까리밤콩 400g  
6,000원



토종아주까리밤콩 400g  
6,000원



토종선비잡이콩 400g  
6,000원



국내산 청차조 400g  
8,800원

홍살림 추천상품



유기농 백미 골든퀵 4kg 17,500원



유기농 현미 4kg 18,000원



홍살림 들기름 250ml 15,400원



이해무 명장의 전통 참웃된장 400g 9,900원



셰프가 만든  
홈메이드 프리미엄 새우장



우사골국물 600g 4,900원



나물밥 쉽게 만들기 나물 30g+쌀400g 6,500원



나물밥 쉽게 만들기 45g 6,500원



황태시래기밥 쉽게 만들기 45g 6,500원



유기농 간장으로 만든 간간장 새우장 500g 34,500원



삼치 오븐구이 90g 4,300원



고등어 오븐구이 90g 3,500원



우리밀 감자 수제비 1kg 7,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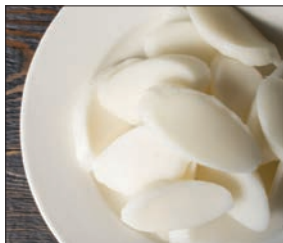
우리밀 김치손만두 1kg 13,500원



간양념새우장 500g 34,500원



우리밀 쌀소면 400g 4,300원



떡국떡 500g 실온/냉동 4,100원



바삭바삭등심돈까스 1.2kg 25,000원



무농약쌀 떡볶이 530g 6,800원



유기인증 미역 100gX4ea 17,200원



국물용 멸치 250gX3ea 15,000원



[오희숙]명인이 만든  
chap-sal 김부각 30g 2,800원



[오희숙]명인이 만든  
연근칩 30g 2,800원



[오희숙]명인이 만든  
감자칩 30g 2,500원



[오희숙]명인이 만든  
chap-sal미역부각 30g 2,800원



[오희숙]명인이 만든  
우엉칩 30g 2,800원



[오희숙]명인이 만든  
chap-sal 다시마부각 30g 2,800원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음료!



자연을 품은 건강핵염소 진액 100ml x 30포 119,000원



미엔용 30포 국산 녹용 추출액 50%,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238,000원



힘엔용 30포 100% 국내산! 생녹용,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288,000원



키엔용 30포 100% 국내산! 생녹용,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148,000원



힘내용 30포(사은품 증정) 국산 녹용 추출액 40%,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99,000원



국산 약콩으로 만든 대학 약콩 두유 190ml 22,500원



친환경 우영차 60g 11,000원



유기농 양파즙 100ml x 30포 29,900원



양배추 바르게 담아 100ml x 30포 44,000원



양파바르게 담아 100ml x 30포 42,000원

**꾸러미가 좋다 — 회원 후기**



**대전 송강동 정\*환 님**

꾸러미에 온 미나리로 오징어 초무침! 과 미나리를 다져서 반죽한 수제비 혼자먹는 저녁이라도 잘 챙겨먹게된다.

**울산 백\*윤 님**

봄이 되니까 이것저것 신기한 채소들이 꾸러미에 배송된다. 민들레도 먹는건가..? 레시피보고 민들레 무침에 도전했다.



**옥천 정\*영 님**

3월도 끝이구나 마무리는 흠살림꾸러미에서 온 도토리묵으로~

**4월 생활꾸러미 예정 품목**

4월 1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두부	350g
눈개승마	200g
미나리	200g
간쪽파	200g
애호박	1개
양배추	1통
표고버섯	120g
4월 2주차	
품목	단위
김밥용김	1봉
김밥용햄	285g
단무지	400g
유정란	10알
시금치	300g
김밥용우영조림	130g
깻잎	1봉
당근	500g
4월 3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두부	350g
땅두름	200g
더덕	1봉
파프리카	1개
오이고추	150g
느타리버섯	300g
4월 4주차	
품목	단위
간매추리알	250g
아스파라거스	200g
도라지	1봉
꼬마새송이버섯	300g
취나물	200g
대파	300g
오이	2입
두부	350g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유기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동물복지**  
가축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된 농가



● **저탄소**  
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농산물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친환경인증이 아닙니다.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켓투유 앱으로 간편하게 장보자**

흠살림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쇼핑몰 '마켓투유'가 앱으로 나왔다. 안드로이드는 물론 iOS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소비자들보다 간편하고 쉽게 흠살림 친환경 온라인 장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마켓투유를 검색해서 다운 받으면 된다.



꾸러미란 어머니가 싸주시던 보따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직거래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철 농산물이 매주 배달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꾸러미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1주일 먹거리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이제 장보러 가지 마세요  
꾸러미하세요**

• 꾸러미 상담/주문전화 :  
**043-212-0935**  
shop.heuksalim.com

알찬꾸러미	생활꾸러미	채소꾸러미	과일꾸러미	미니과일꾸러미
월4회 120,000원	월4회 100,000원	월4회 60,000원	월2회 80,000원	월4회 8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와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등 필수 생활꾸러미와 과일 2~3종으로 구성됩니다.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로, 유기농 무농약 채소로만 구성됩니다.	국내산 친환경 과일로, 안심하고 곱질째 드셔도 됩니다. 제철과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친환경사과, 토마토, 유기농바나나와 제철과일 1종으로 구성되어 곱질째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 발송 : 매주 화요일	• 발송 : 매주 화요일	• 발송 : 매주 수요일	• 발송 : 매주 수요일
				

## 흙살림상 후보자 공모

제6회 흙살림상 주인공을 찾는다. 흙과 농업과 생명을 살리는 흙살림 철학을 지키면서, 흙살림 농법으로 유기농업을 실천·보급하고 있는 농민이 그 대상이다. 흙살림상은 지난 2014년 제정되었으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추천서 접수

- ▲ 접수 기한 : 2019년 4월 30일
- ▲ 제출 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 공적 증빙자료
-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ksh680322@hanmail.net)

■ 발표 및 시상

- ▲ 발표 : 2019년 5월 ▲ 시상 : 2019년 6월

※ 수상후보자 추천서 양식은 흙살림 홈페이지(www.heuk.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문의 :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043-833-5004)

## 흙살림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흙살림 신문이 후원회원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고자 합니다. 생일이나 돌잔치, 환갑, 칠순,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출산과 같은 기쁜 소식은 물론 함께 슬픔을 나누어야 할 부고까지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새끼를 낳아 분양하고 싶은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흙살림 신문을 여러분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보세요. 서로 한발자국 가까이 다가가 보자고요.

■ 문의 및 소식 보내실 곳 : 이메일 silentwind@hanmail.net 전화 043-833-5004

■ 이메일 제목 : <흙살림 사랑방>으로 적어 보내주세요.

### 회원 소식

#### 청천유기농 현판식

지난 3월 5일 괴산 청천군 회원들이 모여 청천유기농 현판식을 가졌다.



### 방문



3월 4일 서형수 국회의원(왼쪽 네번째)이 흙살림 청주센터 방문했다.



3월 26일 인도네시아 이란토(wiranto)씨가 흙살림 청주센터 방문했다.

##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후원도 가능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지 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흙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흙살림연구소의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한 쓰일 것입니다.

문의 :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3월 후원회원 가입

(주)ACT정다운여행사, 박건혁(서울), 박승인(서울), 신미영(서울)

####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사영, 강승희,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김광부, 김규은, 김기현, 김남운, 김대수, 김대화, 김동연, 김동진, 김만수,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식, 김수철, 김숙원,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송, 김준권,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종연, 도재천, 리병현, 리양채, 리영환, 류훈희, 민성기, 박기환, 박동윤, 박상일, 박영구, 박영옥, 박정국, 박정규, 박종삼, 박중수, 박종원, 박중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백미숙, 백운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서위중,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윤제, 송기봉, 송동흙,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문수, 신연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정섭, 안정택,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원순자,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민,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현구,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종화, 전홍탁,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성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청천, 조기진, 조 솔, 조정인, 조중기, 조현국,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오, 홍석민, 홍용기, 홍종윤, 황대호, 황인걸

가림다마을영농조합, (주)세인, (주)제일그린산업, 한국농식품인증원, (주)흙살림, (농)흙살림푸드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 3월 흙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11일	청주	행사	40	흙의 날 기념식 및 표지석 고사
12일	양평	회의	20	양평 한살림 회원 대상 간담회
19일		회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22일	부안	회의	15	산들바다 공동체 현장평가회
26일	서울	회의		베트남 람동성 투자컨퍼런스
27일	세종	회의	35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총회
28일	청주	회의		흙살림, 흙살림 푸드 주주총회

###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본분사! 본분사!

☞ 논둑에 심은 산수유

봄마다 서늘한  
꽃을 피웁니다.

동백으로 시작해  
대화·산수유로  
이어지는 봄꽃은  
세상사라잡 누그러  
즐길수 있는  
공공재  
입니다.

사랑받는  
젊은 산속

에서도 꽃이 피고 향기도 다르지 않아, 무위의 하늘향  
으로 칭송 되기도 합니다. 산수유 꽃 아래서 온종일  
봄일하고 지냅니다. 꽃피우는 본분사, 일하는 본분사!



# 두 가지 길의 현실적 근거



인류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이행하면서 대체로 기원전 첫 밀레니엄(기원전 1000년-기원전 1년) 사이에 '보편적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최초로 등장한 보편적 질서는 첫째로 돈, 두 번째는 국가와 제국, 세 번째는 종교였다. 이에 상응하여 상인과 정복자, 예언자가 탄생했다(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이 이행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지만 이행의 길은 서로 달랐다. 경제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행에는 고전고대적(그리스적) 형태와 게르만적 형태, 그리고 아시아적 형태가 있었다(이하의 내용은 최종식, 『서양경제사』, 芝原拓自, 『소유와 생산양식의 역사이론』, 大塚久雄, 『공동체의 기초이론』 등을 정리한 것이다).

혼돈으로부터 질서로의 이행은 인간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되며 정착과 동시에 인간에 의한 대지의 점유양식의 차이에 따라 이행의 길이 달라진다. 이는 인간이 정착할 때의 주객관적 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이 중 중요한 것은 정착하는 종족의 조직 상태(원시 공동체)와 기후와 토지의 물리적 상태(풍수風水)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 따라 대지의 점유양식은 물론 노동 대상과 노동과정이 달라지고 생산물이 달라지고 생산물의 교환 방식 역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의식의 양식 역시 달라진다. 왜냐하면 의식은 아무리 그 자립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발생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 시켜나가지 못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그 사회에 해가 될 때는 대부분 억압되어 소멸되기 때문이다.

아시아적 형태는 종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의한 대지의 공동 소유에 기초한 공동 노동(인공 관개와 같은 치수治水가 대표적인 것이다)을 기본적인 생산관계로 한다. 소유와 생산과 분배는 공동체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완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 '가족'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소유와 생산, 분배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개인이나 가족은 공동체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아시아적 형태는 황하 하류와 같은 아시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강 유역 등, 농업이 시작된 곳이라면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질서로 가는 보편적인 농업공동체다. 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씨족이었는데, 씨족은 대가족으로 구성되고 다른 여러 씨족에 속하는 5-20개의 가족과 하나가 되어 공동 가옥에 거주하며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다(모건, 『고대사회』). 이런 씨족이 모여 종족을 이루게 되는데, 각 씨족은 설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상속되거나 양도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씨족에 의해 점유되어 경작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그 종족의 공동 경지가 되며, 공동 경지의 개간을 포함한 모든 토지는 각 가족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실질적 평등'(막스 베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아시아적 공동체는 가부장제에 의해 구성되는 가족 공동체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부족의 형태로까지 확대된 일련의 가족이라는 가부장제 대가족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하여 가족에 의해 영속적으로 또한 사적으로 점취된 토지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 글자가 '거거[정자正字는居]'이다. '거'는 조상의 시체[尸, 주검 시]를 깔고 앉은 모양[尸, 안적 궤]이다(시라카와 시즈카白川靜는 『字統』에서 이를, 조상 제사 때 시주尸主人 사람이 궤[에] 허리를 걸치고 있는 모양 이라고 한다. 이는 금문金文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갑골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가부장의 권리가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토지는 '하늘이 준 보물 창고', '신이 내린 선물'이자 동시에 흉수나 가뭄을 가져오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토지는 신이 되며 토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는 동물 역시 그러한 존재였다. 동물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잡아먹기도 한다. 따라서 동물도 신이 된다. 사람들이 토지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 역시 사람이기도 하였다. 농경과 더불어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동물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사적 소

유가 강화되고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에 변화가 온다. 동아시아에서는 가부장제 및 사적소유의 발전과 더불어 조상신인 제帝로 바뀌고(상나라) 왕권이 강화되면서부터는 도덕적 명령을 내리는 천천으로 바뀐다(주나라). 춘추전국 시대는 다시 천에서 도道로 바뀌는 시기였다. 이제 토지는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동물 역시 대상이 되었다.

아시아적 형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연의 힘이 신과 같은 절대적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거기에 대응하는 공동체 역시 절대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수장은 자연인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격, 곧 신격적神格的인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의 능력은 오로지 공동체 나아가 수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은 공동체 또는 수장 또는 신의 소유로 의식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제주의'와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 이는 '인격적 의존관계'로서 자연발생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개인의 인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노예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이 노예라는 존재 또는 노예 의식과는 다르다. 노예는 자신의 노동력은 물론 자신의 몸까지 제3자에게 소유당한 자임에 비해 이들은 비록 공동체에 매몰되어 있지만 자신의 노동력과 몸은 자신의 것이다. 또한 공동체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사적 점유에 의한 사적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노동에서 오는 소외가 없으며 분배에서 오는 소외 역시 없었다. 노예 의식 역시 생길 수 없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들에게는 대신 공동체가 있었고 신이 있었다. 공동체는 나이고 신 역시 나였다. 그러므로 이들이 속한 공동체는 에텐동산이나 파라다이스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었다.

한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은 특정한 지역을 다른 곳과 구분하여 경계를 짓는 일이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수렵 채취 사회의 인간에게도 자신의 영역이 있지만 이는 자연 조건에 따라 늘 변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자연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자연이 흐르는 것이 된다.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 역시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나뉜다. 길들여진 곡식이나 동물과 더불어 자연은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조작하는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자연은 신의 지위에서 내려와야 했다. 하늘은 명령을 내리지만[천명天命] 그 명령은 벌써 인간의 것,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배자의 명령이 되어버린 것이다. 신은 이때 벌써 죽었다. 적어도 지배자에게 있어서는.

글 홍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홍살림**  
HEUKSALIM



**Marketou**  
자연이 배운 건강한 식탁, 마켓투유



자연의 품은 **건강흑염소**



권장소비자가격 119,000원 (100ml X 30팩입)

추출가공식품(살균제품)

흑염소혼합추출액 100%  
[고형분 5% 이상, 흑염소 14.7%(국산)]

충분한 방목장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란 흑염소와 최상급 한약재를 더하여 위생적인 시설과 최신 공법으로 잡내를 최대한 제거해 드시기 편한 진액입니다.

**자연의 품은 건강흑염소**

- 홍살림에서 직접 개발한 **안심 사료**와 **자연친화적**으로 방목하여 키운 흑염소를 사용하였습니다.
- GMP 인증 한방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국내산 최상급 한약재**를 사용(사인, 감초 수입급)하였습니다.
- 3중 마이크로필터 여과방식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기름, 누린내 및 한약 슬러지**를 100% 제거하였습니다.
- 사물당 처방전에 **복령, 삼주, 사인, 감초, 생강, 대추** 사용(원기회복, 기와 혈을 보강)하였습니다.
- 성마리오농장 박사급인력들이 한의사, 한약사와 공동연구개발한 제품입니다.

**상품문의 및 주문전화 : 1544-1092**

쇼핑몰주문 :